

건강검진에서 전립선특이항원(PSA)농도가 증가된 성인남성의 추적조사

박재형, 최범희, 손중천, 정현주, 김범택, 박새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검진에서 전립선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립선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로는 직장수지검사, 경직장초음파검사,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등이 있으나 집단검진을 시행하는 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선별검사로 PSA검사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민감도에 비해 특이도가 높지 않으며, 특히 PSA의 경우 전립선 암 이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 허혈 등 양성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고 연령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선별검사로 시행한 PSA검사 결과 그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추적검사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아주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에서 PSA농도가 정상 참고치 2.5 ng/ml 이상으로 증가된 사람 중 의무기록지를 조사하여 1년 이내에 PSA 추적검사를 시행하였고, 추적검사 이후 경직장초음파검사 혹은 전립선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전립선질환 여부가 확인된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전립선조직검사 결과와 경직장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립선 비질환군, 양성 전립선 질환군, 전립선암군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PSA 선별검사 결과 대상자 중 전립선 비질환군의 연령이 35.5 ± 5.9 세로 전립선비대증 55.7 ± 11.5 세, 전립선염 51.5 ± 12.7 세, 전립선낭종 50.4 ± 11.9 세, 암 의심군 60.6 ± 10.5 세, 암 확진군 60.6 ± 10.9 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전립선암군과 암이외의 군으로 구분하여 평균연령을 비교했을 때, 전립선암군이 60.6 ± 10.4 세로 암이외의 군 53.1 ± 12.3 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5$). 선별검사의 PSA농도는 전립선암 확진군이 11.33 ± 7.58 ng/ml로 전립선 비질환군 4.35 ± 2.22 ng/ml, 전립선암 의심군 4.44 ± 2.29 n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추적검사시 모든 군에서 PSA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전립선암 확진군 10.13 ± 6.13 ng/ml로 전립선비질환군 2.55 ± 0.97 ng/ml, 전립선비대증 4.33 ± 3.80 ng/ml, 전립선염 3.61 ± 2.17 ng/ml, 전립선낭종 3.00 ± 1.86 ng/ml, 전립선암 의심군 3.81 ± 2.82 n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결론: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의 선별검사는 40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별검사시 PSA < 10 ng/ml인 경우 추적검사가 필요하고, PSA³ 10 ng/ml일 경우에는 조직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 전립선특이항원, 전립선암, 선별검사